

장성서 전남 첫 구제역 의심신고

암소·송아지 등 12마리...간이검사에선 '음성'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성의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서는 등 구제역의 전남지역 침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전북·제주와 함께 마지막 남은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마저 뚫리면서 사실상 전국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관련기사 3면>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성군 장성읍의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큰 소 2마리와 송아지 10마리가 이상징후를 보인다고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다.

한우 182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 농가는 지난 17일 구제역 예방접종을 마쳤으나 암소 2마리는 찢쪽지가 붉게 부어오르는 증세를, 송아지는 콧등에 물집형적과 설사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아지 10마리 중 1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초동 방역반을 농장에 긴급 투입해 소독에 나서는 한편 농장 인근 500m 이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출입차량 통제에 들어갔다.

또한 도 산하 축산위생사업소 직원들을 통해 간이 진단키트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를 받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6시께 현장에 나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1차 육안검사 및 축산위생사업소의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장성군과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장성지역 한 한우 사육농가의 입구를 봉쇄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장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이 나온데다 침침리이나 40도를 넘는 체온상승 등 구제역 양성반응 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적인 병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첫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북 안동에서도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간이검사의 신빙성이 떨어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31일 오전까지는 마음을 놓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확인검사 결과가 양성으

로 나올 경우 감염소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추가로 지급받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다음달 3일까지 완료하고 구제역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올해 도내 농가에 공급할 유기질 비료를 전량 전남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개월전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전남은 아직까지 청정상태를 지켜내 도내 축산물이 상종가를 기록하며 반대급부를 누려왔다"며

"만약 전남마저 뚫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축산기반은 무너지게 돼 전남의 방어선 구축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예방백신이 구제역을 100%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방역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문화나무 상상강좌’ 광주 강연 김동호 前 부산영화제 위원장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에 간섭 말아야”

“관(官)이 간섭하면 문화는 죽습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태) 공동주최로 지난 28일 빛고을문화관 4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연중 시민아카데미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 김동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창설 15년만에 세계 5대영화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율성’이었다”면서 “광주문화재단의 문화행사들도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문화행사에 ‘외풍’(外風)이 불기 시작하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2면>



“광주, PIFF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김동호 이사장의 이날 강연회에는 김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국비와 시비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관으로부터 지원받지만 프로그래머와 스태프, 자원봉사자 등 철저히 영화제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러진다”면서 “물론 영화제 초기 예산지원을 이유로 부산시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근 15년동안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지만 (나 자신 역시)프로그래머의 업무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면서 “문화CEO의 역할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금을 끌어오고 의공은 막아주고 책임질 일은 기꺼이 떠안는 조직의 든든한 ‘바람막이’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

금호터미널 주인 바뀌나

주식 100% 가진 대한통운 매각따라...지역민들 “착잡”

금호그룹의 뿌리이자 상징인 광주 광천동 금호터미널의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유-스퀘어(U-square)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주)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닌 대한통운 소유여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대한통운과 공동 운명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와 광주신세계, 유-스퀘어 입주 업체들은 금호터미널이 금호그룹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과 매각에 따른 계약조건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호터미널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터미널은 지난 2006년 금호산업에서 대한통운으로 분할됐다. 대한통운은 자본금 500억원 규모인 금호터미널을 2000억원에 매입, 자본을 100% 소유하고 있다.

현재 금호터미널은 광주·전남의 관문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각 공고를 내고, 4월께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6월까지 매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 매각과 관련, 포스코와 롯데, CJ그룹, 삼성 등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채권단이 금호그룹에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금호터미널이 광주와 금호의 랜드마크로서 역할과 기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석선장 국내서 수술...2~3일이 고비

성포 해적 5명 구속영장 발부

‘아덴만 여명 작전’ 도중 총상을 입고 오만에 치료 받은 석해군(58)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29일 밤 환자이송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공에 도착,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다. 삼호 주얼리호를 납

치했다 우리 해군에게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관련기사 5면>

석 선장은 30일 새벽 정밀검진 직후 총상과 골절로 광범위한 근육·근막 파사와 다량의 고름이 확인된 복

부와 팔, 다리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고름이 배출되고 있는 부위를 포함해 배농증 및 응고괴사 조직을 광범위하게 약 15cm 가량 절개한 가운데 30일 오전 0시15분부터 3시간 가량 이뤄졌다. 양다리에 박힌 총알 2발을 제거하는 수술도 함께 이뤄졌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석 선장에게 나 타났던 패혈증과 DIC(범발성 혈액응고 이상) 증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향후 2~3일이 고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석 선장에게 대통령 주치의의 비롯한 전문 의료진을 보내 치료토록 했다.

부산지법은 30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편으로 김해공항 공군기지에 도착한 해적 5명 전원에게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협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MUSEO 뮤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르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MUSEO 뮤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딩

뮤제오

메리이트 워딩룸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복서관

KB 국민은행 동성동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포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이트 워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